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mailto: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87호 2026년 2월 8일(가해)

<b>미사 안내</b>	<b>평일</b>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b>주일</b>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b>연령회</b>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			



## 오늘의 미사

## 연중 제 5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독서 : 이사야서 58,7-10</li> <li>▶ 화답송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li> <li>▶ 2독서 : 코린토 1서 2,1-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음 환호송</li> <li>◎ 알렐루야</li> <li>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li> <li>◎</li> <li>▶ 복음 : 마태 5,13-16</li> </ul>
---	--

성가 ▶ 입 당: 421 ▶ 봉헌: 510, 220 ▶ 성체: 162 ▶ 파견: 2

- ① 2월 15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② 2월 15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 ③ 2월 봉성체 안내  
2월 봉성체는 2월 19일(목, 오전) 서쪽 지역, 2월 20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④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2월 15일~21일)
- ⑤ 미사 참석시 명찰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⑥ 매월 넷째 주 2월 22일(일) '한끼 나눔'
- ⑦ 2월 14/15일 설날 합동 위령미사 30분전 연도 (새벽미사: 미사 후)
- ⑧ 2월 18일(수) 재의 수요일 미사 (저녁 7시)



사목공지



사목위원회

※ 교육분과 교리교육 공지

- 2월 8일(일): 가족 사랑/생명 사랑
  - 2월 15일(일):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 시간: 오전 9시 / 장소: 예비자 교리실
- 교리에 관심 있는 신자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구역 및 단체

① 다락방 모임 안내

일시: 2월 8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룸

② 가이무키 구역 모임

일시: 2월 8일(일) 오후 5시  
문의: 황마리아 220-0822

③ 솔렉 구역 모임

일시: 2월 10일(화) 3시30분  
문의: 이명노 비오 227-5630

④ 연령회 모임

일시: 2월 15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⑤ 기아모쿠 구역 모임

일시: 2월 21일(토) 오후 5:30  
장소: 김아가다 907-570-2034

■ 故 노태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장례미사 안내

- 연도: 2월 8일(일) 교중미사 후
- 장례미사: 2월 11일(수) 오전 10:30 (오전 9:30 연도)
- 하관식: 2월 11일(수) 오후 3시 Valley of the Temple

■ 故 김영선 요한 형제님 장례미사 안내

2025년 12월 23일 향년 84세로 선종하셨습니다.

- 장례미사: 2월 13일(금) 오전 10:30 (오전 9:30 연도)
- 하관식: 2월 13일(금) 오후 1시 Hawaiian Memorial Park

※ 2025년도 개인 Tax Return용 기부금 영수증을 1월 31일부터 배부 예정입니다.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찾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 설날 합동 위령미사 안내

2월 17일 설날을 맞아 2월 14/15일 합동 위령미사가 있습니다.

미사에물 접수를 받고 있사오니 각 미사에물 접수처 혹은 사무실로 2월 13일(금)까지 접수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을 앞두고 성지가지를 2월 14일(토)까지 회수합니다.

※ 2026년 견진성사 모집 안내

신청기간: 2026년 2월 22일까지

견진 교리교육 기간: 3/1-3/22 (총 4회)

신청문의: 김명희 크리스티나 808-218-1051

※ 제대초 봉헌 감사합니다.

이정녀 아네스, 김민자 아가다, 채옥자 헬레나

※ 성당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오피환 바오로, 오봉래 안나

※ 2026년 설날 빙고게임 안내

하와이 한인성당 청소년 AOG 주최로 2월 15일(주일) 미사 및 떡국 점심식사 후, 모든 신자분들과 함께하는 설날 빙고게임을 실시합니다. 본 행사는 AOG 신앙활동 및 2027년 세계청년대회 참가 청년 지원을 위한 기금마련 행사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빙고카드: 1장 \$5 (1인당 최대 5장)

- 사전판매: 토요일 4시 미사 후 / 일요일 10시30분 미사 후

기타공지

## ※ 미사: 시작 예식(9) : 본기도에 대해서(2)

미사의 시작 예식

입당 - 성호경 - 인사 - 참회 - 자비송 - 대영광송 - 본기도

본기도

지난주에 이어서, 본기도에 대해 계속 나눠봅니다. 본기도 때 사제는 팔을 벌려 기도합니다. 팔을 벌리는 자세는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기도의 자세로써, 하느님께로 향하여 그분의 도움을 바라는 자세입니다(탈출 17,9-14; 시편 134,2; 이사 1,15).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부께 바치는 기도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설명드린 대로, 사제는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긴 맺음으로 장엄하게 기도를 끝맺습니다. 다음의 맺음기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54항)

**【성부께 바칠 때】** ...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께 바치지만, 기도 끝에 성자에 대한 말이 있을 때】**

...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성자께 바칠 때】** ... 주님께서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교우들은 이 청원에 함께 참여하고 아멘으로 환호하여, 이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삼는다.

사제의 맺음기도 후, 모든 이들은 “아멘”이라고 환호합니다. 이 응답을 통해 본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의 기도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마칠 때마다,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이라는 응답에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아멘”이라는 히브리어는 “신뢰할 만한”이라는 뜻이고, 그리스어에서는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아멘”은 능동적인 동의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바탕으로 오늘날 전례 때 응답하는 “아멘”은 동의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히브리어의 환호의 의미와 사제의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에 나의 마음도 함께 담겠습니다.’라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본기도를 끝으로 시작 예식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시작 예식을 통해 인사를 나누고, 죄를 참회했으며, 하느님께 자비를 청했고, 나아가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려 합니다.

대전교구 윤진우 세례자 요한 신부



알아줍시다

<b>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b>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b>브라이언 오토 바디샵</b>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b>뷰티터치 (BEAUTY TOUCH)</b>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b>New York Life</b>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b>Ginzawon (긴자원)</b>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b>묘지매매</b>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

## ※ 연중 제 5주일 강론 요약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떤 특별한 이상적인 자리로 부르기도, 우리가 이미 서 있는 삶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신앙은 말이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두 개의 독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굶주린 이를 외면하지 않고 고통받는 이를 지나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자신의 약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둔 믿음을 전하고자 했다고 고백합니다. 세 독서는 모두 신앙이 삶 안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실천을 종종 너무 크고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특별한 능력이나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처럼 느끼며, 그 부담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소금과 빛의 비유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은 눈에 띄지 않게 녹아들어 음식의 맛을 살립니다. 소금이 없으면 밍밍해지고, 지나치면 망가집니다. 빛 또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이가 보도록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비유는 신앙이 앞에 나서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주변을 살리는 것임을 보여 줍니다.

바오로 사도의 고백은 이러한 삶이 완벽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려 줍니다. 그는 약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춘 뒤에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향해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요구이기보다 신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조금 더 밝히기를 바라십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맡겨진 몫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실천이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헌금

2월 7/8일 Augustine Educational Foundation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1월 24/25일: \$8,754 (한끼나눔: \$1,979)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39명
	주일헌금	교무금	2차헌금	특별헌금		
	\$3,568	\$2,970	\$1,589	\$627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광고 문의**

사무실  
 808-422-1010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